

# 『개마고원』에 나타난 인물 형상의 유연성과 경직성 연구

오 태 호  
(경희대학교)

## I. 서론

본고는 1950년대 북한문학의 대표작인 『개마고원』의 문학사적 특징을 개괄하고 인물 형상의 유연성과 경직성을 고찰하여 북한문학의 유연한 내면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황건의 『개마고원』(1956)은 1945년 해방 전 후로부터 1951년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형상화한 1950년대 북한문학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당대의 문체적 개인인 지식인 청년의 유약한 내면과 각성된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 그리고 개마고원의 자연 풍경이 당대 현실과의 조화 속에 매끄럽게 그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1967년 이후 ‘주체사상의 유일체제화 시기’로 들어서면서 북한 사회가 경직되기 이전에 쓰여진 소설이기에, 인물의 내면 형상화를 검토했을 때 김일성의 가계 형상 중심의 ‘항일혁명문학’이 보여주는 도식성과 획일성 등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파악된다.

『불타는 섬』(1952)과 『개마고원』으로 해방 이후 북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황건(1918~1991)은 양강도 풍서군에 있는 허천강기슭의 화전농의 집에

서 태어났고, 본명은 재건이다. 11세 때 형을 따라 서울에 온 그는 직업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다녔으며 전주사범학교 강습과를 마친다. 이후 전북 무주와 중국 장춘 등지에서 교원 및 기자 생활을 하면서 습작을 하기도 하지만,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체험하면서 울분과 절망 속에 가축을 기르며 은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sup>1)</sup>

북한의 공식적 문학사에서는 ‘습작’이라는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황건의 문학활동을 평가절하하지만, 김윤식에 따르면 1941년에 이미 만주에서 발간된 『싹트는 대지』라는 단편집에 안수길 등의 단편소설과 함께 황건의 『제화(祭火)』가 실려 있다. 만주의 신경에서 회사에 다니며 문화운동에 열을 올리는 한 지식청년의 좌절과 내면의 갈등을 그린 이 작품은 만주국 조선족 지식인의 자의식을 다룬 자전적 심리소설에 해당한다.<sup>2)</sup> 이 소설은 문장력이 있으며 “이상(李箱)을 연상케 하는 심리적인 탐구로서 재만 작가 가운데는 한 이채가 되는 듯” 하다는 상찬의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습작 수준이라는 점과, 화자의 자살동기를 비롯한 심적 체험이 지닌 서사적 개인성의 미흡이 단점으로 지적된다.<sup>3)</sup>

황건은 해방 직후에는 혼란스런 서울에서의 해방정국 풍경과 1946년 미소 대표단 환영 대회를 그린 『깃발』(1946)을 발표한다. 이 작품이 좌익의 해방 공간 체험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작가가 사회주의적 관점의 옹호 속에 좌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선택했음이 드러난다. 이후 고향인 삼수 갑산으로 돌아가 토지 개혁과 새조국 건설에 나선 산간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낸 『산곡』(1948), 『목축기』(1948) 등을 발표한다. 이 두 작품은 당대의 대표 문인인 이기영에 의해 “우수한 묘사력과 능숙한 언어구사”의 탁월성을 인정받는다.

『산곡』에 있어서의 비전형성문제라든가 『목축기』에 대한 ‘현실인식의

1)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4』,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9(2000), 479쪽.

2) 김윤식, 『황건론-정치·문학 일원론에 이르는 길』, 『한국 현대 현실주의의 소설 연구』, 문학과학사, 1990, 173~183쪽.

3) 김오성, 『조선의 개척문학-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대지』를 평함』, 『국민문학』, 1942. 3. 24쪽.

불충분성'이라는 지적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두작품은 그 능숙한 언어구사와 우수한 묘사력을 유감없이 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설정이나 사건구성에 있어서는 번번이 약점을 들어내놓고 있다. (중략) 「산곡」 「목축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었고 미적지근 하였다. 그들은 인민정권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든지 수동적 립장에서 자기사업에 전력을 다할뿐 그이상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다.4)

물론 두 작품에 대한 평가는 막연한 상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주의적 관점 속에 '비전형성'과 '현실인식의 불충분성'이 비판을 받는다. 서사적 개연성의 부족이 인물 설정과 사건 구성의 약점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곡」에 대해 평론가 박종식은 “묘사력의 우수성”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상성의 저도”5)라는 비판을 진행한다. 이렇듯 황건의 초기작에 대한 당대적 평가는 공과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후 탄전의 노동계급 속으로 들어가 탄광생활 6개월 만에 단편소설 「탄맥」(1949)을 발표하는데, 이 작품은 북한에서 ‘민주건설시기’ 애국적 헌신성으로 노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한 우수한 성과작의 하나로 꼽힌다. 이기영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치밀하고도 정확한 소재연구와 성실한 창작태도와 즐기차고 근기있는 필력”6)을 높이 평가한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황건은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인민군의 형상과 인민들의 성격적 특징을 포착하여 사상과 정신의 변모를 형상화한 단편소설 「안해」(1951), 「불타는 섬」과 중편소설 『행복』(1952) 등을 창작한다. 특히 「불타는 섬」은 김일성의 “참된 혁명전사로서의 영생하는 삶을 빛내”면서, “1950년 9월 미제침략자들의 인친상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월미도를 영웅적으로 방어한 리대훈 해안포중대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백절불굴의 투지를 형상한 작품”7)으로 고평된다.

이러한 창작 활동과 더불어 1954년 3월부터 작가동맹 소설분과위원장, 양

4) 이기영, 「소설가 황건을 말함」, 『문학예술』, 1950. 4, 22~33쪽.

5) 이기영, 위의 글, 23쪽.

6) 이기영, 위의 글, 28쪽.

7) 김선려 외, 『조선문학사』 11, 사회과학출판사, 1994, 138~142쪽.

강도 지부장 등으로 사업하면서 개마고원 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포착한 장편소설 『개마고원』(1956)과 중편소설 『새벽길』(1960)을 창작한다. 이 작품들에서는 해방 이후 전쟁 시기에 이르는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과 계급적 갈등이 첨예하게 그려진다. 이어서 그는 항일 혁명전통 주제의 장편소설 『아들딸』(1965), 『자라는 대오』(1971), 『새로운 항로』(1980)와 중편소설 『딸』(1987) 등을 창작한다. 창작생활 40여 년 동안 8편의 중장편소설과 3권의 단편소설집, 100여 편의 예술산문과 평론들을 쓴 공적으로 1988년 4월 28일 ‘김일성상’을 수상한 그는 언제나 시대 정신에 대한 깊은 탐구에 기초하여 의의 있고 깊이 있는 인간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들의 성격적 특성을 박력 있게 형상화한 작가로 평가받는다.<sup>8)</sup>

『제화』로부터 『딸』에 이르는 다수의 작품 중에서도 황건의 대표작인 『개마고원』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과 혁신을 위한 체제 문학의 지향점을 내포한다. 하지만 해방기 좌익의 도덕적 우월성과 한국 전쟁의 정당성 표방이라는 표면화된 주제의식의 이면에서 텍스트의 미세한 결을 읽다보면 주체사실주의가 강조하는 종자론의 신화로 귀속되지 않는 인물들의 내면 갈등과 심리 묘사의 유연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분단 이후 북한에서 창작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과는 다르게 황건의 문학활동이 일제 강점기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북한문학의 유연성과 경직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개마고원』에서 주인공 김경석을 중심으로 인물 형상의 유연성과 경직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이 ‘수령 형상화’에만 매몰되지 않은 1950년대 북한문학의 섬세한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 II. 『개마고원』의 문학사적 특성

해방 이후 1950년대 내내 지속된 반종파투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중심의

8) 사회과학원, 앞의 책, 479쪽.

유일 권력체제를 전일적으로 구성하려는 과정에서 문학예술은 이데올로기적 교양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문학적 핵심 과제로 ‘첫째 수령 형상의 등장, 둘째 수령의 영도를 중심에 둔 혁명 전통의 형상화, 셋째 집체 창작에 대한 강조, 넷째 항일 혁명 문학의 유일한 혁명 전통화’ 등을 강조하게 된다.<sup>9)</sup> 『개마고원』은 이러한 반종파투쟁 이후의 이념적 경직성을 함의함과 동시에, ‘수령의 절대화’ 이전 인민의 내면 풍경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유연한 북한문학의 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주인공 김경석은 투철한 사회주의적 신념으로 무장한 실천가이기 이전에 엄혹한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 속에서 유약한 개인적 감수성을 지닌 동요하는 지식인으로 형상화되어 주목된다.

『조선문학통사(하)』(1959)에서는 이 작품을 이기영의 『두만강』, 한설야의 『설봉산』과 함께 1950년대 북한문학의 대표작으로 고평한다. 하지만 작품의 결정적 결함으로 심리묘사가 불필요한 사족에 이르는 경향이 있음이 지적된다.

심리묘사, 이것은 『개마고원』을 특징짓는 중요한 예술적 측면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 작품의 약점을 야기시킨 요소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심리 묘사가 때로 불필요한 사족에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조선 인민의 과거의 생활과 투쟁에 대한 역사적 주제는 해방 후 우리 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sup>10)</sup>

‘탁월한 심리묘사’가 『개마고원』의 중요한 예술적 측면임과 동시에 작품의 약점을 가져온 요소라는 평가는 이 작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불필요한 사족에 해당한다고 평가받는 심리묘사가 남한 연구자의 시각에는 역설적이게도 이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한 경직성이 강화되던 1950년대 후반의 북한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사족으로 평가절하할 뿐이다. ‘천리마 운동’이라는 속도 제일주의의 지향 속에, 종파주의의 척결을 강조하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김경석의 우유부단한 내면 표출은 ‘불필요한 사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

9)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218~219쪽.

10) 과학원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하)』, 과학원출판사, 1959, 인동판, 334쪽.

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사족으로서의 과도한 심리묘사’라는 비판적 평가는 이후 『조선문학사』(1978)에서도 이어진다. 그리하여 장점으로서는 ‘장구한 역사적 시기가 배경인 점, 해방 후 계급투쟁을 다양한 인물 형상으로 그려낸 점, 인물들의 사회계급적 차이와 입장 속에 성장과정을 명확히 보여준 점, 새것의 승리와 낡은 것의 소멸이라는 생활발전의 합법칙성을 뚜렷이 천명한 점, 북방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풍습, 세태풍속, 자연풍경, 기후풍토가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진 점<sup>11)</sup> 등이 거론되지만, 단점으로는 『조선문학통사』에서처럼 장황한 심리묘사가 사족이자 군더더기로 지적된다.

이렇듯 1980년대 이전의 문학사에서는 ‘심리묘사의 과도성’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조선문학사』(1999)에 이르면 작품 자체의 개별적 특성을 주목하여 기존의 평가에 비해 단점을 상대화하는 평가로 변모된다.

인물들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그린 점에서 소설은 특이한 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있다. (중략) 경석이와 순희가 상대방에 대하여 인식하고 파악하며 자신들의 립장과 결심을 표명하지 못하는 내면세계의 묘사는 심각하다.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묘사하는데서 주정토로를 많이 쓴것도 특징적이며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며 작품의 사상적 내용을 강조하는데 복잡한 개성화된 대사들을 길게 쓴 것도 남다르다.<sup>12)</sup>

이때에 이르면 『개마고원』은 ‘특이한 정서적 감화력’을 내장한 작품으로 인정되고, 내면 세계의 심각한 묘사, 과도한 주정 토로, 개성화된 대사의 장문화 등은 작품의 한계가 아니라 ‘특징’이자 ‘남다름’이라는 관점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나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등 주체 사실주의의 특성을 강조하다 보면, 내면이 거세되어 도식화된 인물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1990년대적 평가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문학대사전』(2000)에서 “특히 애정관계에 있는 경

1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인동판, 333쪽.

12) 리기주, 『조선문학사』 12, 사회과학출판사, 1999, 158~159쪽.

석이와 순희와의 호상관계를 그리면서 그들의 사회계급적치지와 입장을 명확히 밝힌데 기초하여 내면세계에서 발현되는 미묘한 움직임까지 깊이있게 추구함으로써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한 형상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sup>13)</sup>라는 심리묘사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미묘한 내면 세계의 움직임 포착과 생동감 있는 성격 형상화 등이 작품의 미적 특질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심리묘사의 측면을 보았을 때, 황건의 『개마고원』은 부정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변모된다. 그것은 크게 1980년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문학사적 인식의 시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해방과 분단, 전쟁 시기를 거쳐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통해 확고하게 체제 수호 의지를 강조하였을 때와, ‘숨은 영웅’ 등의 사회주의 체제의 일상 현실을 형상한 소설들에서 미시적 일상성이 주목되던 시기와의 상대적 차이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식론적 단절의 단초는 1980년 1월 제3차 조선작가동맹대회에서 김정일이 1980년대 문학예술의 방향을 제시한 지침에서 확인된다.

높은 당성과 심오한 철학성은 혁명적 문학 창작의 주요한 요구이다. 모든 작가들은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창조 체계와 창작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연주의·도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고 창작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확고히 세우는 동시에 개성적 특성을 옹기 살리며 철학적 심도를 보장함으로써 사상 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sup>14)</sup>

작품 창작에서 ‘높은 당성과 심오한 철학성’을 제기한 김정일의 창작 지침은 작품의 수월성 제고를 통해 개성적 특성의 확보와 철학적 깊이의 보장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 현실을 다룬 소설에서는 ‘숨은 영웅’의 형상화, 절실하고 의의 있는 사회적 문제의 제기(도농 갈등, 세대간의 갈

13)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1』, 사회과학출판사, 주체89(2000), 279쪽.

14) 김재용, 앞의 책, 259쪽.

등, 여성문제), 예술적 기량의 성숙 등의 성과가 가시화된다.<sup>15)</sup> 이러한 분석에서 드러나듯 『개마고원』의 심리묘사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가 1980년대를 전후하여 부정적 비판에서 긍정적 평가로 바뀐 것은 당중앙의 이름으로 하달된 김정일의 문예지침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북한문학사의 평가가 ‘심리묘사’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변모되는 양상이라면, 남한에서는 개별 작품론에서부터 작가론에 이르기까지 황건의 문학세계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진행된다. 김윤식<sup>16)</sup>은 ‘정치와 문학의 일원론’에 이른 길로 황건의 문학을 요약하면서 1941년 만선일보 출판부에서 발행한 『썩트는 대지』에 실린 단편 『제화』(1941)로부터 작가론을 시작한다. 이 단편집에는 “만주 개척사 서설”이 지닌 의미에 대한 염상섭의 서문과 함께 김창걸의 『암야』,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 신서야의 『추석』, 안수길의 『새벽』, 한찬숙의 『초원』, 현경준의 『유맹』 등이 함께 실려 있는데, 황건의 작품은 만주국 조선족 지식인의 좌절과 내면 갈등을 형상한 심리소설로 평가된다. 그리고 해방기의 서울 풍경과 1946년 미소대표단 환영대회를 좌익의 관점으로 묘사한 『깃발』(1946)을 ‘작가와 정치가의 분기점’으로 읽어내고, 고향 산수갑산을 무대로 새로운 사회 건설의 분위기를 형상한 『산곡』(1948)과 『목축기』(1948)를 거쳐, 6.25의 체험이 형상화된 『개마고원』에서 소설가 황건이 정치와 문학의 일원론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그는 『개마고원』의 갈등 구조를 두 가지로 파악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의 이념분자들과 반동지주세력과의 갈등이 단선적인 선악일변도의 계몽소설과 구별된다고 분석하고, 애정 변화의 가능성과 불변성을 토대로 주인공 경석이 현실원칙과 관념 원칙 사이에서 유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윤식이 『제화』에서 『개마고원』까지 이르는 작품 분석과 당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 작가론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면, 김승중<sup>17)</sup>은 1950년대를 전후한 북한문학의 배경 속에 『개마고원』의 문학적 공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15) 김재용, 『1980년대 북한 소설 문학의 특징과 문제점-사회주의 현실’ 주제의 중장편을 중심으로』, 앞의 책, 254~277쪽.

16) 김윤식, 『황건론-정치-문학 일원론에 이르는 길』,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학사, 1990, 173~207쪽.

17) 김승중, 앞의 글, 135~156쪽.

그는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북한소설을 일별하면서 『개마고원』이 해방기 북한문학의 특성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 혁명적 낭만성, 창조적 노력의 주인공, 비판적 모티프의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작품이 1956년 10월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 즉 첫째 반동문학 조류의 청산과 항일혁명유산의 계승, 둘째 도식주의와 무갈등성의 극복, 셋째 고전과 문학 유산의 계승 등을 함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반부 28장까지를 낚은 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건설해가는 과정을 담은 ‘현실주의적 소설’로 평가하면서 경석과 순희, 경석과 계숙의 연애 관계에서 무갈등성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드러나며,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권성팔이 상투성에서 벗어난 개성적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후반부 50장까지를 ‘애국심의 실험대로서의 6.25’로 읽어내면서 6.25 전쟁이 인민들의 진정한 애국심을 실험하고 인민정권의 5년을 심판하는 무대였음을 설명하려는 계급교양의 목적으로 이 작품이 쓰여졌다고 분석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전반부가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후반부는 현실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면서, ‘무갈등성의 극복’을 내재화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김윤식의 작가론과 김승중의 작품론을 참고하면서 김재남<sup>18)</sup>은 황건문학 전체를 개괄한다. 그는 「제화」와 「깃발」이 ‘절망적 삶의 현실과 귀향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며, 「산곡」과 「탄맥」은 훼손된 가정이 회복되면서 새조국 건설의 지향이 형상화되고 있고, 「안해」와 「불타는 섬」과 「행복」은 6.25 전쟁 시 인민군의 저항과 희생정신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분석하면서 그 영웅적 투쟁성이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로 삼입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개마고원』, 『아들딸』, 『새로운 항로』, 『딸』 등에서 역사를 소설화하기 위해 장편소설의 세계로 나아갔으며, 결국 작가의 문학세계를 ‘역사의 서사화를 위해 나아간 문학적 행보’로 요약한다. 그러면서 역사를 소설화하려다가 작가와 부정적 인물 사이의 객관적 거리가 유지되지 못하고 희화화된 단점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황건의 작품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불타는 섬」이 역사적 폭력성

18) 김재남, 『황건문학연구』, 『세종대학교논문집』 18, 1991. 12, 85~97쪽.

을 희생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혁명적 비극의 형식을 띠고 있음을 주목한 글<sup>19)</sup>, 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를 비교하면서 소설의 개인적 경험 서사가 영화에서 영웅적 국가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반영물로 변모되는 서사적 차이를 비교한 글<sup>20)</sup>, 1960년대 대표적인 ‘혁명적 대작’의 하나인 『아들딸』을 통해 항일혁명 문학과 전통성 확립 문제를 검토한 글<sup>21)</sup> 등이 주목된다.

황건의 『개마고원』은 북한의 체제문학이 보여주는 공산주의적 윤리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텍스트 내부에 편재적으로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문학의 개성과 차이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면서 해방기의 혼란상과 북쪽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담론화 과정이 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 김경석의 내면에는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넘어 체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심리적 동요가 자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III. 심리 묘사의 유연성

1950년대에 이르러 북한문학은 전후 문예조직의 개편과 함께 종파주의에 대한 사상적 검증과 미학적 투쟁을 강조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르주아 미학 사상의 잔재에 대한 비판 역시 지속된다.<sup>22)</sup>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제1차 ‘전국작가예술가대회’를 열어 ‘조선작가동맹’이 발족되면서,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를 강조하며 ‘고상한 도덕성’을 교양할 것을 당부하게 된다.

19) 신형기, 『‘주체’의 길, 고립의 길-전후 북한문학의 모습』, 『동서문학』, 2003. 가을, 354~364쪽.

20)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 연구-서사와 장르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집, 2004. 3, 275~297쪽.

21) 홍혜미, 『항일혁명 문학과 전통성 문제-황건의 『아들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집, 2004. 12, 299~325쪽.

22) 김성수, 『1950년대 북한 문학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151~186쪽.

첫째, 전체 작가 예술가들은 우리 조국의 국토 완전 통일 독립의 강력한 담보로 되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위해, 자기의 창조적 재능과 정력을 다 바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 계급의 가장 선진적 인물의 전형을 창조할 것이며, 경제건설 투쟁에 꺾기한 전 인민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강고케 할 것이며, 전쟁 승리를 우리 인민이 발휘한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를 건설 투쟁의 승리로 계속 양양시키도록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작가 예술가들은 현실의 거대한 전변 속에 대담하게 들어가 노동 계급의 실지생활을 체험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배우고 동시에 그들을 교양하며 노력 혁신자들의 위훈을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력을 사랑하며 노동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고상한 도덕성으로 교양할 것이다.<sup>23)</sup>

북한에서는 1953년 박헌영 간첩사건과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을 통해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와 국내 정파인 갑산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비판 세력이 거세된다. 이 사건들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김일성 중심의 교조적 이데올로기로 전화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행로와는 다르게 1956년 10월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는 도식주의, 기록주의, 무갈등론 등이 비판되면서 현장성과 생동감이 사실주의의 핵심임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1950년대 북한문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의 이론적 심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개마고원』은 북한문학사에서 1950년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첨예한 계급투쟁의 반영’<sup>24)</sup>을 대표하는 소설로 평가된다. 소설은 1945년 6월부터 1951년 5월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질곡을 김경석이라는 지식인의 변모를 중심으로 형상화한다. 김경석은 우유부단한 식민지 청년에서 현실 변혁의 중심에 서면서 투철한 사회주의자로 변모하는 문체적 주인공으로 형상

23) 윤세평, 『전후 복구건설 시기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편,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280쪽.

24) 김선려 외, 앞의 책, 138쪽.

화된다. 그가 문체적 주인공일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당대의 현실적 요구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상적 국가 만들기의 대의명분 속에서도 사적인 애정 갈등을 통해 동요하는 내면 형상이 지닌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도식적 결말 이전에 드러나는 인물들 간의 갈등 과정에서의 동요와 여백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의 동요란 윤리적 양심이나 심리적 판단, 사회적 신념이 미결정된 상태를 이음하는데, 김경석에게서는 작품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유동하는 내면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전체 총 50장으로 구성된 『개마고원』은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6.25 전쟁 이전과 전쟁 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부는 1945년 6월부터 1950년 6월 전쟁 직전까지의 내용으로 1장에서 28장까지로 볼 수 있고, 2부는 전쟁 개시 이후인 1950년 6월에서부터 1951년 5월까지 29장에서 50장까지로 볼 수 있다. 『개마고원』의 서사를 장악하는 것은 지식인 청년으로 나오는 김경석이다. 일제강점기에 징병으로 끌려갔던 그가 탈출한 뒤에 고모집에 숨어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소설은 시작된다. 그리고 작품 마무리에서는 군당 선전일꾼인 안계숙과의 결혼식을 전쟁 중인 1951년 5월에 치르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 작품에서 동요하는 내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은 경석과 약혼녀 순희와의 심리적 갈등, 경석과 계속의 애정 관계, 경석의 여동생 경옥과 할머니의 말다툼 장면 등에서이다.

경석과 순희, 경석과 계속을 둘러싼 애정선은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생동감 있게 살아 있는 인물들의 심리적 동요의 표정을 보여준다. 경석과 순희의 관계에 대해 김윤식<sup>25)</sup>은 경석이 근대적 친일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부르주아적 신분 상승을 지향한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작품 내에서 경석이 순희에 대한 연정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분출하는 것은 친일지주 집안에 대한 거부감이다. 특히 자신을 징병에 끌려가게 한 순희네 지주 집안을 동물 보듯 하며 노골적 분노와 적개심을 노출한다. 따라서 신분 상승에의 욕구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근대적 친일 세력과의 결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25) 김윤식, 앞의 글, 200~205쪽.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경석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약혼녀 순희와 애정 관계를 유지하지만, 징병에 끌려가면서 지주 집안과 소작농 집안이라는 계급 간의 갈등 속에 가문의 반대와 우유부단한 성정으로 인해 결국 그녀와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석의 심정적 동요와 순희의 흔들림은 북한문학의 공적 연애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사적 욕망을 생생하게 표출한다. 사실 가문이나 애정이나 식의 양자택일적 문제는 1910년대를 전후한 신소설의 멜로드라마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갈등 전개 양식에 해당하지만, 시대적 당위를 개인의 욕망보다 앞세우는 북한문학에서 개인의 정서적 충동과 다면체적 욕망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제 와본다면 순희와는 기울여온 정성이 컸던 그만큼 지금은 회한만 컸다. 애당초 그럴 수도 없는 일을 억지로 빠득빠득 끌고 온 것도 같았다. 이제 와본다면 순희는 단지 아름다운 여자였으며, 단지 그런 여자였을 뿐이었다. 남을 사랑함에 변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의 아름다움과 용모의 아름다움 그것 까닭에 자기는 그를 내내 잊지 못하고 있었다. 애정에 대하여 단순하였다는 그 점에서는 자기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도 그 정은 어머니의 젖가슴 허비는 어린 아이의 손길처럼 내 가슴 속을 허비고 있는 것이었다. 탈은 여기에 있었다.<sup>26)</sup>

경석은 순희에 대해 ‘정성’을 기울였지만 ‘회한’만 키운 관계였음을 고백한다. 순희에 대한 애정이 실은 유년시절부터 비롯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과 외모의 아름다움에 치중할 호감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었음을 반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지주집안의 딸임을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적대감보다는 유년시절의 추억에 동요되는 경석의 모습은 낭만적 기질을 내면화한 치기 어린 청년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개연성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자신을 어머니

26) 황건, 『개마고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143쪽.

의 정에 굶주린 어린아이에 비유한 묘사가 그것을 입증한다.

순희와의 애정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사실로 고민하던 경석은 안계숙을 보면서 첫눈에 반한다. 경석이 순희와의 관계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른 여성을 자기의 욕망의 시선 내부로 인입한다는 점에서 삼각관계를 배제하는 북한문학의 서사적 특성과 공적 윤리의식에 나포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석이 순희와 계숙을 대할 때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고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서사적 매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순희 역시 경석과 계숙 앞에서는 자신의 흔들리는 내면을 고백한다.

순희는 아무에게도 원망을 가지는 일 없이 자신을 사죄만 하였다. 그러나 마음 속은 날마다 고평한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 단 한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단 한 사람 계속에게만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을 속이듯이, 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나 마찬가지로 얼핏 스쳐 지날려는 것인데, 생각은 자꾸 거기서 맴돌았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미칠수록 계속에 대한 원한의 매듭은 더 상급하게 살아오면서, 그것으로 하여 마음 속은 다시 평안을 잃고 점점 번조를 일으켰다.<sup>27)</sup>

순희는 경석과 헤어진 후에 자살을 결심하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속내를 표출한다. 겉으로는 ‘사죄’의 표정을 짓지만 실은 경석에 대한 원망과 계속에 대한 질투가 그녀의 내면에 자리한 감정의 원형들이었다. 하지만 순희는 연애의 파국의 원인을 자기화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경석에 대한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그저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자신의 탓이라며 경석과의 연애에 중지부를 찍으려 하고,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 내지 못한다. 그저 자신의 연적인 계속 앞에서는 분노와 함께 질투와 시기 등의 감정이 드러나면서 원한의 매듭으로 감정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연정의 대상인 경석 앞에서는 수동적인 봉건 윤리의식만을 보여주지만, 연적인 계속 앞에서는 공격적 적대감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순희의 형상 역시 이데올로기적 선택과는 상관없이 사실적 내면을 보여준다. 경석과 계숙을 향

27) 황건, 앞의 책, 194쪽.

한 순희의 이중적 타자의식은 입체적 개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순응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 역시 순희와 성격이 유사하다. 하지만 계속은 순희의 아픔을 수용하면서 개인의 감정을 괄호치는 이타적 존재로 그려진다.

경석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받게 된 자기 가책의 괴로움과, 그런 뒤에 그를 더 잊지 못하게 되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싸움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괴롭던 기억은 너무나 컸으며, 그중에도 가장 가슴을 여미며 남아도는 마음은 (그러면 나는 끝내 남의 사랑을 빼앗으려한 여자며 자기 까닭에 남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한 여자인가?) 이것이었다. 결국 계속은 경석의 생각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며 자기는 차라리 아무와도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sup>28)</sup>

계속은 경석과 가까워지면서 순희에 대한 가책과 함께 순희의 자살사건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반성한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가 오히려 경석에게로 향하는 욕망의 강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자신이 사랑의 변절자가 아닌가 하는 회의 섞인 질문을 던진다. 결국 순희와 계속 앞에서의 경석, 계속과 경석 앞에서의 순희, 경석과 순희 앞에서의 계속 등은 제3의 타자를 상징함으로써 삼각형의 애정 관계를 통해 성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애정 전선에서의 심리적 동요는 나중에 혼인이 성사되는 경석과 계속의 사이에서도 유지된다.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더구나 이 둘의 결합을 방해하는 순희의 자살 미수 사건이 낭만적 사랑의 성사로서의 결혼을 유예시키면서 사랑의 장애물로 등장한다. 물론 여러 난관을 뚫고서 경석과 계속은 동지적 이성을 기반으로 결혼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그들은 타자의 욕망을 응시하면서 충분히 충동적이고 인간적인 표정을 보여준다.

28) 황건, 앞의 책, 293쪽.

경석의 가족 내부에서 심리 묘사의 유연성과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관계는 할머니와 여동생 경옥 사이에서 드러나는 대립과 갈등 부분이다. 경옥과 대립각을 세우는 할머니는 전쟁 중 일시적 후퇴 시기에 사망하지만, 사망 전까지 전쟁 중에 여군으로 지원하며 적극적 좌익 활동을 전개하는 실천적 신세대 여성인 경옥과 갈등을 지속한다. 이 둘의 대립과 갈등이 바로 도식화되지 않은 개성적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할머니와 경옥은 작품 내내 갈등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집안이 망하겠다... 집안이 망하겠어... 계집년이 다리를 벌겍게 드러내놓고 저렇게 싸다니구서 잡되는 집 꼴을... 못 봤어...” 하고 눈을 깔깔치렁 하여 가지고 경옥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이 집안이 이날 이때까지 아무 흉허물 없이 내려왔건만 저년 까닭에... 필경 저년 까닭에 망신을 하고 말거라니...” /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숫제 대꾸를 안하던 경옥이도, 이밤은 안방문을 채 열지 못하고 픽 돌아섰다. 나중 말은 정 참고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무슨 흉허물이 났어요? 어떻게 망신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정 그래 보세요 내 할머니 보기 싫어서두 어디 가버리든지 어찌지 않는가 보세요!”<sup>29)</sup>

할머니는 경옥이가 해방공간에서 여맹 등의 바깥 활동을 하느라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경옥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식의 패가망신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그녀의 적극적 외부 활동이 망조의 암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민정권의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신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가족 내부에 여성 차별적 시선이 팽배했던 가부장제적 현실의 리얼리티를 확보함으로써 당대적 사실성과 개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할머니와 경옥은 서로에게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대치하면서 작품의 긴장감을 증대한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개진하는 경옥은 자신의 헌신적 노력을 배타적 시선으로 읽어내는 할머니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할머니와 경옥의 대화

29) 황건, 앞의 책, 104-105쪽.

에서 드러나는 가족 내부의 갈등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주지 않은 채 감정의 골을 세움으로써 당대적 리얼리티를 확보한다. 그리하여 할머니와 경옥은 보수적 세계관과 변혁적 세계관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면서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구세대와 신세대 여성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강제도 개입되지 않으며, 상식적 화해로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 묘사의 유연성과 함께 생생한 리얼리티를 살려낸 관계로 파악된다.

#### IV. 인물 형상의 경직성

『개마고원』의 기본 서사는 김경석을 중심으로 한 좌익 활동가들과 친일지주 집안 정씨네의 대립과 갈등 속에 사건이 전개되는 작품이다. 김윤식은 경석의 내면 갈등과 함께 이 작품의 갈등 구조 중의 하나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이념 분자들과 반동 지주 세력과의 갈등”으로 꼽으면서 경석 중심의 사회 개혁 세력과 친일 지주 세력과의 대결이 일승일패 식으로 반복되면서 작품의 갈등 구조가 단선적인 선악 일변도의 계몽 소설과 구별된다고 파악한다.<sup>30)</sup> 하지만 권성팔과 어영쇠, 원갑 등의 인물 성격이 사안에 따라 입장이 변모하면서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형상화된 것을 제외하면, 사회변혁 세력과 친일 지주 세력의 선악 구도는 시종일관 대립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작품 속에서는 좌익 세력과 친일 지주세력의 계급적 갈등이 해방기와 분단, 전쟁을 거치면서 해방기의 사회적 혼란상으로 가시화된다. 일제 말기에 징병으로 끌려간 지 두 달 만에 경석은 1945년 6월 하순에 비를 맞으며 집으로 몰래 숨어든다. 친일 악덕지주인 순희네 정씨 집안 사람들에게 의해 일찍 징병에 내보내진 경석은 울분을 참으면서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면 뒷방으로 나오는 은둔 생활을 계속한다. “어떤 학대받는 주린 짐승”<sup>31)</sup>처럼 자신을 비

30) 김윤식, 앞의 글, 204쪽.

31) 황건, 앞의 책, 1쪽.

하하며 시대적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경석은 약혼녀 순희네 가족에 대해 “개새끼들 두구 보자!”<sup>32)</sup>라며 속으로 분노를 곱씹는다. 유약하면서도 충동적인 내면을 지닌 경석의 적대계층으로는 친일지주 집안인 ‘정씨네’가 자리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경석은 친일세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보다는 은둔자로서 일신의 안위와 수배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로운 활보를 기대하는 평범한 청년으로 등장한다. 해방 이전의 경석은 나약한 지식인의 전형적인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석을 중심으로 좌익과 우익 측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교조적 존재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이데올로기의 도그마를 내면화한 존재들로는 친일지주 집안 출신인 정씨네와 좌익 활동가들을 들 수 있다.

친일지주 집안인 정씨네는 지극히 평면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정씨네는 오로지 일제 강점기에 지니고 있던 각종 기득권을 유지한 채 해방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남한의 도움으로 북한을 해방하려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는다. 그들은 경석의 약혼녀 ‘순희’를 제외하고서는 성격과 지향, 신념과 행동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평면적 인물들로 그려진다. 약혼녀 순희의 아버지인 경방단장 정태악, 면장인 육촌 오빠, 오촌 큰아버지인 지주 정태기, 정영구, 태기의 칠촌 조카 정영익, 순사 정영환 등은 주동 인물 김경석의 반대편에서 경석의 윤리적 신념과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반동인물로 고정된다. 그리하여 내면이 거세된 동물적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경석은 좀처럼 다니지 않던 처갓집 울타리 밖에 다가가려니,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도수장에라도 끌려가는 것처럼 으슬기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청승맞은 도깨비 같은 순희의 할아버지는 두고라도, 본래부터 마주서기 싫던, 마적 같은 태악은 갈퀴진 음산한 눈이 요즈음은 실망과 시기와 울분 속에 더 사나울 것이 뻔했다. 거기다 삼수서 매를 맞고 돌아온 순희의 오빠 영환은 본시 아버지를 닮은 데다 오래 순사로 지내는 사이에 더하여진 살기 서린 움푹한 눈을 희번덕거리며 대가리 깨어진 송냥이 꼴로 으르릉대고 있을 것이었다.<sup>33)</sup>

32) 황건, 앞의 책, 8쪽.

33) 황건, 앞의 책, 52쪽.

작품 도입부에서 처갓집으로 여길 만큼 가깝게 생각했던 정씨네 집안이지만, 그 집 울타리 곁에 다가서는 경석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참담한 기분을 감지한다. 그것은 자신을 징병에 끌려가도록 만든 원흉이라는 개인적 원한 관계도 있지만, 정씨네가 마을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지배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해온 착취계급이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행한 악덕으로 인해 경석의 눈에 비친 정씨네 집안사람들은 “청승맞은 도깨비”, 마적처럼 “갈퀴진 음산한 눈”, “살기서린 움푹한 눈을 희번덕거리며 대가리 깨어진 승냥이 꼴” 등의 혐악한 표정을 지닌 동물적 존재들로 표상된다.

이렇듯 우익을 표상하는 포악한 동물적 형상의 강조는 이 작품의 권선징악적 구도를 강화한다. 따라서 경석과 지주 계급과의 갈등은 선과 악, 동지와 적의 이분법적 대결구조로 귀결되는 전근대적 소설 구조를 이끈다. 그것은 자연스레 ‘친일, 친미, 남조선, 지주, 보수, 반동, 부르주아, 반혁명, 반민족’을 악의 축으로 구축하고, ‘항일, 반미, 북조선, 노동계급, 진보, 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 민족’을 선의 축으로 구축하여 선명한 대립각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악에 대한 선의 승리,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라는 주제의식을 함의하게 된다.

정씨네로 표상되는 친일지주세력이 내면이 거세된 동물적 존재로 그려진 반면, 좌익 활동가들은 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지식인과 하층민들로 형상화된다. 우유부단한 지식인 김경석은 좌우익 갈등을 거치면서 체제 변혁의 선구자이자 전쟁의 영웅으로 변모한다. 그를 그러한 주된 동력으로 전환케 하는 동지들로는 전치덕, 남재한, 안계국, 권성팔, 어덩쇠(정영삼) 등의 좌익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 앞의 세 사람은 일제 강점기때부터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을 지속했던 실천적 행동가의 전형이다. 하지만 술을 좋아하고 불똥성질을 가지고 있어 실수를 자주 하는 권성팔이나 정씨네 편에서 햇불을 들기도 했던 어덩쇠 등은 심리적 갈등을 내장한 존재들로 그려짐으로써 오히려 입체적 내면을 획득한 개연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정씨네와의 대립과 갈등 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들은 점차 경직된다. 그리하여 경석과 함께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체제수호 의지를 이끄는 이데올로기적 존재로 변모된다. 특히 이들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장악

하고 있는 인물은 수상 김일성이다.

“단지 명령만 하지 마십시오 - 하고 경석은 흥분 속에 계속했다- 호소를 하시되 그들의 애국심과 열성을 마음껏 발휘시켜야겠습니다. 지금은 인민들의 애국심과 열성이 무한정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할당 수량도 제시하지 말고 농민들 자신이 자기 낼 것을 자진해 말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수량만큼 선택하면 될 겁니다. 미국놈들이 인천에 상륙한 뒤에 우리가 서울도 내어놓았다는 이야기두 하십시오. 물론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신심은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六월二六일에 하신 김 일성 수상의 방송 연설 정신을 더욱 철저히 침투시켜야 합니다. 저는 군에서 요구하는 숫자의 五〇프로를 더 내두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올 계구 더 내두 좋을 겁니다. 아직은 우리 여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걸 거둬하는 가운데 절충이 되더라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언제는 소 돼지가 우글우글한 데서 지금처럼 불렸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소 돼지들은 무엇 때문에 불귀운 겁니까? 모든 것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또 뿔꾸지요... 더 강력하게 집행해 주십시오. 각 세포에두 극력 보장하도록 지시를 주겠습니다.”<sup>34)</sup>

6.25 전쟁이 발발하자 경석은 인민들의 애국심과 열성을 발휘시키고자 노력한다. 이성적 ‘명령’과 감성적 ‘호소’ 사이에서 ‘호소’를 택하여 인민들의 자발적 ‘애국심과 열성’을 작동하려는 경석의 모습에서 순회나 계속의 연애 관계에서 보여주던 낭만적 개인의 표정은 사라진다. 더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신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강조하는 경석의 모습은 교조적 이데올로기를 맹신하는 신념화된 표상으로서의 면당위원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경석의 신념 밑바닥에서 구심점으로 작동하는 인물은 당연히 김일성이다.

하지만 김일성의 ‘불멸성과 영도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전면화 시기 이후의 작품들보다는 상당히 약화된 형태로 ‘김일성’의 형상이 그려진다. 심지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위대성과 헌신성이 반복적

34) 황건, 앞의 책, 257쪽.

으로 강조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 이후 전선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석도 빨찌산이 되어 마을을 떠나며 동지들에게 용감성과 헌신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던 경석은 태악이 등에게 붙잡혔다가 소작농인 원갑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작품 말미에 부상당한 경석은 병문안 온 계속과 더욱 많은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오월에 결혼식을 거행할 것을 다짐하며 작품이 종결된다.

『개마고원』의 서사는 전쟁 이전까지는 긴박한 상황 전개와 세밀한 심리묘사가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전쟁 이야기로 진입하고부터는 작품의 긴장이 사라진다. 적대계층과 지지계층이 분명하게 갈라서서 적아 간의 대립과 투쟁, 갈등이 노골화되기 때문이다. 즉 작품 전반부에서는 경석과 순희와 계속의 삼각 연애 구도가 작품을 이끄는 서사적 동력이 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순희가 탈락되면서 소설적 재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재미의 빈 자리를 적대감으로 채운 신념의 화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와 경석의 애정 결합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연애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끝부분에 슬쩍 행복한 결말로서의 결혼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략 처리되고 있는 점은 이 작품의 서사적 한계로 파악된다.

## V. 결론

『개마고원』은 북한문학이 본격적인 ‘김일성주의’라는 유일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체제문학으로 들어서기 이전, 생동하는 인물들의 복잡미묘한 심리적 풍경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 그 풍경에서는 도식주의적 정당성을 신념화한 인물들만이 활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이 교시하고 당이 결심하면 인민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정국이나 전쟁 중의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개인의 내밀한 사적 욕망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밀도 높게 추적하고 있기에 남한의 시각에서도 소중한 텍스트로 판단된다.

『개마고원』은, 198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일상 현실을 다루어 남한에서도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접할 수 있었던 『벗』이나 『쇠찌르레기』, 『청춘송가』 류의 사람 냄새를 내장하고 있다. 수령을 향한 향일성으로 무장한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 안에서도 이성(異性)에 대한 갈망 속에 심리적 동요를 내면화한 존재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신념화된 존재로 형상화되지만 김경석, 정순희, 안계숙, 김경옥 등은 동요하는 내면의 다면체적 속성을 표출하면서 인물 형상의 유연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황건의 『개마고원』은 북한식 문학 독법에서만 문학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작품이 아니다. 작품 속에서 다성적 목소리와 입체적 내면을 간직한 존재가 1950년대 북한문학에 실재했었음을 증거하는 문학 자료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유일체제 이후 북한에서 앞세우는 ‘수령형상문학’, ‘항일혁명문학’, ‘선군혁명문학’ 등은 이러한 내면을 의도적으로 괄호치거나 멀리하고 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북한문학에서 이렇게 괄호 쳐진 부분을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문학’ 안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북한문학을 타자의 문학이면서 동시에 민족 내부의 이야기로 포괄하는 논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기초자료

황건, 『개마고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 - 참고자료

과학원 문학연구실, 『조선문학동사(하)』, 과학원출판사, 1959.

김선려 외, 『조선문학사』 11, 사회과학출판사, 1994.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 김승중, 『황건의 『개마고원』론』, 한국문학연구회 편,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135~156쪽.
- 김오성, 『조선의 개척문학-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대지』를 평함』, 『국민문학』, 1942. 3.
- 김윤식, 『황건론-정치·문학 일원론에 이르는 길』, 『한국 현대 현실주의 소설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173~207쪽.
- 김재남, 『황건문학연구』, 『세종대학교논문집』 18, 1991. 12, 85~97쪽.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기주, 『조선문학사』 12, 사회과학출판사, 1999
-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 1·4,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신형기, 『주체의 길, 고립의 길 -전후 북한문학의 모습』, 『동서문학』, 2003. 가을, 354~364쪽.
- 이기영, 『소설가 황건을 말함』, 『문학예술』, 1950. 4, 22~33쪽.
-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 연구-서사와 장르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1집, 2004. 3, 275~297쪽.
- 조선작가동맹 편, 『해방후 10년간의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홍혜미, 『항일혁명문학과 전통성 문제-황건의 『아들 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4집, 2004. 12, 299~325쪽.

❖ ABSTRACT

A study on pliability and inflexibility of character about  
*Gaema-Highland*

Oh, Tae-ho

A *Gaema-Highland* represents delicate psychological scenery of characters who animated in the literary work just before North Korea literature change to the only ideas as 'Kim Il Sung Doctrine'. The scenery is important meaning because every characters don't act up to their conviction that follows the party by rote. The characters don't act in the way of a leader enlighten and party decide. The work shows private desires in the concrete despite the Liberation Period's confusion and the Korean War's trial.

The *Gaema-Highland* by Hwang-geon is not to be only evaluated in literary history of North Korea. Because it proves that characters had polyphony and polyhedric mind in the North Korea literature in the 1950s. Since the 'Kim Il Sung(≡Kim Jung Il) Doctrine' times, North Korea literature has advocated 'The only leader literature', 'The anti-Japanese revolution literature' and 'The fore-military revolution literature'. North Korea literature has excluded polyphony and polyhedric mind. But we should consider polyphony and polyhedric mind in the North Korea literature. This point of view is able to regard North Korea literature as identical national literature though North Korea is the other political system. Therefore we can find humanity in North Korea literature.

---

Key Words

북한문학, 황진, 『개마고원』, 다성성, 심리 묘사의 유연성, 인물 형상의 경직성  
North Korea literature, Hwang-geon, 『Gaema-Highland』, polyphony, pliability  
of psychological descript, inflexibility of character

논문접수일: 2009. 11. 15.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